

은퇴노인 10가구 중 4가구,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미쳐

2025년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전망
은퇴 노인빈곤율 39.4%...OECD 상위권
고용률 36.2%...10년 전보다 6.1%p 상승

노인인구 1000만명 돌파 시점이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인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에도 못미치는 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빈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의 18.4%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는 빠른 고령 인구 증가로 2025년이면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오는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전망이다.

기대여명은 2021년 기준 65세는 21.6년, 75세는 13.4년으로 전년보다 각각 0.1년씩 늘었다. 기대여명은 기준 연령 후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로 향후 65세 노인은 86.6세, 75세 노인은 88.4세까지 살 수 있다는 계산이다.

2021년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4%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지만 OECD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자료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한

국(40.4%) 다음으로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35.0%), 에스토니아(34.6%) 등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호주(22.6%), 미국(21.6%)이고, 뉴질랜드(16.8%), 영국(13.1%) 등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코스타리카(0.502), 멕시코(0.451), 미국(0.397) 다음으로 높은 0.376을 기록했다. 지표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아직까지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순자산액은 4억5364만원으로 1년 전보다 4316만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 자산액인 4억5602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인들이 가진 자산 중에는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2.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일하는 노인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6.2%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p), 10년 전보다 6.1%p 상승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62.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2015년 이후 상승 추세다.

2021년 OECD 회원국(38개국)의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 15.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34.9%), 일본(25.1%), 스웨덴(19.2%), 미국(18.0%) 등 11개국이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업률은 2018년까지 3% 미만을 유지하다 이후 계속 올라 2019년 3%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실업률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3.8%를 기록으나 지난해에는 0.8%p 하락한 3.0%를 기록했다.

고용률과 더불어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과거보다 구직활동에 나서는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평균 은퇴 연령인 65세를 넘어서도 취업 전선에 나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는 37.5%로 비취업 고령자(21.9%)보다 15.6%p 높았다.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비중은 34.4%로 비취업 고령자(36.4%)보다 2.0%p 낮았다.

2021년 일하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93.0%이고, 소득 20.7%, 소비생활에 13.9%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21년 일하는 고령자 중 81.9%는 향후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비취업 고령자(72.9%)보다 9.0%p 높았다.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의 68.1%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비취업 고령자(51.4%)보다 16.7%p 높았다.

2021년 65세 이상 일하는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36.1%), 여행·관광(25.4%), 소득 창출(21.3%) 순이었다.

변영일 기자

롯데백화점, 가을 맞이 '패션위크' ...가을·겨울 상품 최대 50% 할인

패션 위크 기간 약 540개 브랜드 참여



롯데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패션위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패션위크'는 패션 상품군 매출 구성비가 가장 높은 달인 10월을 맞아 패션 상품군 할인, 사은 혜택은 물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즌 행사, 이벤트, 팝업 등을 총망라했다.

먼저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약 540개 브랜드가 참여해 가을, 겨울 신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패션 위크에서는 영계주얼, 남성 정장, 셔츠 등 카테고리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0% 상품권을 증정하고, 더불어

패션, 잡화 상품군에서는 10%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을철 고객 수요에 맞춰 '시즌 특화 행사'도 진행한다. 먼저 가을철 피부 관리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인을 고려해 뷰티 상품군에서는 '어텀 뷰티 홀리데이(Autumn Beauty Holiday)' 행사를 연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디올, 에스티로더 등 23개 럭셔리 뷰티 브랜드가 참여해 구매 금액별 10%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가구 상품군에서는 가을철 이사, 웨딩 수요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홈스타일링 페어'를 연다.

에이스, 시몬스, 템퍼 등 유명 브랜드의 침대를 3~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고객에게는 침구, 베개 등의 특별 사은품도 증정한다.

볼거리, 즐길거리 등 '패션'을 테마로 한 '체험형 콘텐츠'도 풍성하다. 먼저 다음 달 7일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유동업계 대표 마라톤 대회인 '스타일런' 행사를 연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잔디광장을 출발해 올림픽공원을 도는 7km, 12km 코스로 러닝이 끝나면 유명 가수 공연도 이어진다.

이슬비 기자



CJ푸드빌 제일제면소, '진한 들기름 막국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제일제면소가 가을을 맞아 고소한 들기름 풍미를 살린 막국수 신메뉴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진한 들기름 막국수'는 메밀면에 통들깨와 김소스를 넣어 만든 비빔 메밀국수다. 메밀 향과 들기름의 고소함을 담아 제일제면소의 특제 김소스로 감칠맛을 살렸다.

차림상 메뉴도 마련했다. 차림상은 진한 들기름 막국수와 삼겹수육, 묵은지, 새우젓으로

구성했다. 제일제면소의 콘셉트 스토어인 무교주가 제일제면소의 차림상 구성도 눈길을 끈다. 해당 매장에선 한우육전과 묵은지를 진한 들기름 막국수와 즐길 수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풍성한 먹거리의 계절 가을, 제일제면소만의 노하우를 담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만한 신메뉴를 선보이게 됐다"며 "가을 풍미를 가득 담아 입맛을 돋워줄 제일제면소의 진한 들기름 막국수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1인 가구 10명 중 4명 '월세살이'...소비 1위는 음식·숙박

남성이 여성보다 소비 많아...외식·차량 관련 지출 ↑

1인 가구의 10명 중 4명이 월세살이를 하고, 집값보다는 배달음식을 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식료품과 보건의 지출이 증가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외식과 문화생활에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1인 가구의 소비지출로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에서 작성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에 31.7%까지 올랐다.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에서 청년층과 노인층은 70% 이상을 차지한다. 가구의 나이는 39세 이하가 37.0%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다음 60세 이상이 33.7%로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의 평균연령은 49.8세로 2인 이상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53.5세)보다 3.7세 낮았다.

1인 가구는 자동차 소유 비율이 39.3%로 2인 이상 가구(78.8%)보다 39.5%포인트(p) 낮았다.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36.8%)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가(30.1%), 전세(23.1%), 기타(10.0%)의 순이었으며, 2인 이상 가구는 자가(69.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세(13.8%), 월세

(11.9%), 기타(5.3%)의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음식·숙박에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55만1000원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음식·숙박(27만6000원)이었다. 그다음이 주거·수도·광열(27만3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19만6000원), 교통(17만7000원)의 순이었다.

가장 적게 지출한 항목은 교육(2만7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액의 1.7% 정도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주류·담배(3만5000원), 가정용품·가사서비스(6만4000원)의 순이었다. 1인 가구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실제 주거비 지출이 크고, 집값보다는 배달음식 등 외식을 자주 이용해 음식·숙박 소비가 식료품·비주류 음료 소비보다 지출이 컸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와 보건의 연령이 높을수록, 음식·숙박, 오락·문화, 의류·신발, 교육은 연령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9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은 음식·숙박(39만8000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주거·수도·광열(29만원), 교통(21만1000원), 오락·문화(16만5000원)의 순이었다.

60세 이상에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25

만4000원) 지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수도·광열(24만원), 보건(16만6000원), 음식·숙박(12만3000원)의 순이었다.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숙박의 식사비는 서로 대체적인 역할을 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식사비 지출액이 증가했지만 육류,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채소 및 채소 가공품 등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액은 감소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집값보다 편리하고, 식사 준비 시간이 필요 없는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5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보다 커 경제활동을 하며 가구 외에서 지출하는 식사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액은 연령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월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자가 비율이 낮은 결과로 분석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165만원)은 여성(146만6000원)보다 18만4000원 많았다. 남성 1인 가구의 소비는 음식·숙박, 교통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고, 여성 1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다.

남성 1인 가구는 집값보다 외식을 선호하고, 차량 관련 지출이 많았다. 여성 1인 가구는 60세 이상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가정 요리를 선호하고, 건강 관련 지출이 컸다.

뉴스스

주담대 금리 다시 7% 넘어...영끌족 '한숨'

"하반기 금리 인상 불가피"

"이자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합니다." 3년 전 주택담보대출 4억8000만 원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 직장인 박모(36)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네 차례 연속 동결해 한숨을 돌렸지만,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박씨는 대출 금리가 2%대에서 최근 6%대로 급등하면서 은행 계좌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박씨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났다"며 "지금보다 이자가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지면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족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특별보급자리론 금리까지 오르면서 영끌족들의 이자 부담 가중이 가계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미국 등 각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다

소 늘었으나, 이전처럼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힘든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21일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다. 상단 금리가 지난달 말보다 0.130%p(포인트) 올랐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단 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시중금리 상승을 고려해 상단 금리를 올렸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은 연 3.900~6.469%로, 하단과 상단이 각각 0.070%p, 0.219%p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신용 1등급·만기 1년 기준)도 4.420~6.420%p 4.560~6.560%p 하단과 상단 모두 0.140p 올랐다.

시중금리가 상승세지만, 가계부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539억원으로, 8월 말 680조 8120억 원보다 1조6419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월 이후 연 3.50%로 동결됐지만,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유나 기자